

서울시장 선거전 여야 '별들의 전쟁'

전국 42개 선거구서 '13일간의 열전' 돌입

손학규·문재인·박근혜 후보 지원 나서 朴-羅 새벽부터 상인·근로자 표심공략

10·2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3일 시작했다.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162명의 후보가 승리를 향해 13일 동안의 레이스에 돌입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좌절로 중도 사퇴한 오세훈 전 시장을 이을 새로운 서울시장과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9명이 이번 재보선에 새로 선출된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 측정의 가능자로 여겨지면서 여야는 사활을 건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첫 날부터 상대 진영을 맹비판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당 최고위

원회의에서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후보는 변화의 어젠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지호 의원은 "박 후보는 호적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할아버지 대신 강제징용됐다고 가족사를 조작했다"며 그의 병역축소 의혹을 거듭 부각시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출정식에서 "박 후보는 이번 선거기간 선동과 상대 비방, 거짓 공약하는 일 없을 것"이라며 "박 후보와 하나 되는 범민주진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을 포함해 남이천 나들목의 부당한 신설문제 등 대통령과 친인척의 비리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다음주 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후보는 이날 새벽부터 거리로 나서 표심을 공략했다.

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메트로 군자차량사업소 방문에 이어 능동 어린이대공원 부근에서 골목청소를 하고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과 만나 지지를 부탁했다.

박 후보는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난데 이어 지하철 회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따라 여야를 넘어 보수-진보의 대결구도가 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앞두고 최대 승부처가 됐다.

또한, 이날 서울 구로, 금천구를 시작으로 4년 만에 선거지원을 제정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야권의

'잠룡'으로 급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간의 '박풍(朴風) 대 안풍(安風)' 대결 구도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에 대선주자급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지원에 가세하면서 선거전은 '별들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는 부산·경남(PK) 민심의 풍향계로 부상한 가운데 야권이 부산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의 경쟁률은 3.9대 1이며 선거운동은 25일 자정까지 계속된다.

한편,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3명을 뽑는 전남에서도 각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됐다. 전남 재보선 선거구는 전남도의원 재선거 장성군 제2선거구와 함평군 제1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 장성 나산선거구, 화순 다선거구, 무안 가선거구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울시장 투표율 40%대 예고

유권자 500명 설문 ... 65% "적극 투표하겠다"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서울지역 유권자 500명으로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변한 적극적 투표율은 65%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7.9%로 가장 높았고 50대(74.0%), 40대(68.6%), 30대(59.5%), 20대 이하(48.0%) 순으로 젊은층의 적극적 투표 비율이 낮았다. 권역별로는 강북서(76.0%), 강남(72.3%), 강남서(59.6%), 강북동(59.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67.9%, 여성의 62.3%가 투표의지를 적극적으로 피

력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비투표 의향(7.0%)과 무응답(1.6%)을 포함한 무당파 부동층 비율은 8.6%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 투표율은 40% 후반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비율은 통상적으로 15~20%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나 후보 지원에 나선데 맞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박 후보 지지에 나서는 등 양측의 경쟁이 격화하면 투표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여론조사기관의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투표율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젊은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상승하면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저조하면 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투표율이 50%대를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의 안일원 대표는 "지난 강원지사 보궐선거와 분당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이 50%대에 육박했다"며 "특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의 총력전은 물론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이 대거 결집할 전망이다어서 투표율이 50%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1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선거 출정식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평가 라운지

박주선, 학술토론회 참석차 방미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선(광주동구) 의원이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열린 학술토론회인 '남북미 3자 트랙 2'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에 정통한 남·북·미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 차원의 행사인 하지만 북한의 대남·대미 협상라인이 사실상 총출동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북측에서는 리종혁 야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림정철 조국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 차건일 건축 평화연구소 소장, 북한 유엔대표부 박철, 최일 참사관 등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연여준 전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백낙청(서울대), 문정인(연세대), 백영길·김성민(이상 건국대) 교수와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 관계 연구실장이 참석한다.

확보 및 최소한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존 부자 감세 철폐와 한국형 버핏세 도입방안도 모색했다.

연석회의는 민주노총·한국노총·교육희망 네트워크·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등 전국 40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강기정, '정당정치 위기' 전남대 특강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전남대에서 '한국 정당정치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강 의원은 이날 "현재 정당정치의 위기는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정당운영에서의 개방성 부족, 새로운 인물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정당은 위기를 맞고 있으나 동시에 외부의 변화 바람을 잘 수용, 정당이 변화 발전해 정당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광주 혁신과 통합' 내달 본격활동

광주지역의 야권 대통합 추진모임인 '광주 혁신과 통합'이 11일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 혁신과 통합 모임은 오는 24일 오후 광주 NGO 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뒤 내달 1일 오후 7시 상무지구 여성발전센터에서 대중집회 형식의 창립대회를 할 예정이다. 광주 혁신과 통합은 조만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인선을 마치고, 창립식 때까지 회원 1000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전남민주운동 동맹회, 새 정치 조직인 내가 꿈꾸는 나라, 문성근 씨가 이끄는 백만 송이 민란운동, 노무현 재단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광주 혁신과 통합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내곡동 땅' 국조 추진"

민주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건립용으로 내곡동 땅을 매입한 경위를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 소유 목장이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의 신설 허가가 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이런 강공책은 내곡동 땅 의혹 등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

주당에 재호재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에 한나라당이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병역 문제 등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논란, 남이천 나들목의 부당한 신설 등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한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음 주중에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30대 60% "민주당 노쇠화"

20~30대는 민주당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노쇠화'를 꼽았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20~30대 청년 100명을 초청해 '민주당을 혁명하다'를 주제로 개최한 원탁회의에서 민주당의 노쇠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율이 5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노선과 정체성 불분명(18%), 대안과 정책비전 만족도 저하(7%), 소통 부족(6%) 등이 지

적됐다. 또 '계파 간 권력다툼이 심하다', '이념·지역 등에 편향됐다', '486 세대가 기득권화됐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의 위기에 대해 '노쇠했다'는 곤혹스러운 진단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며 "정치적 세대교체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곽정숙, 2012년 예산안 해부 토론회

민주당동당 곽정숙(비례) 의원은 13일 민주당 정동영·이용섭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균형 재정의 문제점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



2011년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웨딩, 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대중홀인 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1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 600-9999